

제 목: 2011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1월 CBSI 66.0, 10월에 이어 극심한 부진 지속

- 중견업체 지수 3개월 연속 하락해 침체 심화 -

- 2011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10월에 이어 극심한 부진을 지속함.
- CBSI는 전월인 지난 10월에 전월 대비 8.4p 하락하며 2010년 9월(62.6 기록)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
- 11월에도 CBSI는 전월 대비 0.6p 상승에 그치며 저조한 모습을 보임. 11월 CBSI 66.0은 전월인 10월의 65.4를 제외하면 여전히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임.
- 결국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수준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여전히 극심한 부진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민간부문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발주도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한편, 12월 CBSI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4.3p 상승한 70.3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4.3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2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1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2월에는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 통계적 반등 등으로 지수가 소폭 상승할 수 있으나, 전망 지수 자체는 70.3으로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인 10월과 동일한 84.6을 기록해 체감경기 수준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던(9월 1.9p, 10월 5.1p 하락) 중견업체 지수는 11월에도 전월비 4.0p 하락한 64.0을 기록해 3개월 연속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4월(58.3 기록) 이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선진국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7월 이후 10월까지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11월 들어서는 공공공사 발주 소폭 증가, 통계적 반등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6.4p 상승한 46.4를 기록해 5개월만에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1, 101.6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9.5, 75.3을 기록해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1.8, 78.8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1년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1월 CBSI 66.0, 10월에 이어 극심한 부진 지속

- 2011년 11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지난 10월에 이어 극심한 부진을 지속함.
  - CBSI는 전월인 지난 10월에 전월 대비 8.4p 하락하며 2010년 9월(62.6 기록) 이후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
  - 11월에도 CBSI는 전월 대비 0.6p 상승에 그치며 저조한 모습을 보임. 11월 CBSI 66.0은 전월인 10월의 65.4를 제외하면 여전히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임.
  - 결국 건설업체들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수준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여전히 극심한 부진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민간부문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발주도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유지한 가운데, 중견업체 지수는 하락, 중소기업 지수는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인 10월과 동일한 84.6을 기록해 체감경기 수준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9월 이후 2개월 연속 하락했던(9월 1.9p, 10월 5.1p 하락) 중견업체 지수는 11월에도 전월비 4.0p 하락한 64.0을 기록해 3개월 연속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악화됨.
  -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4월(58.3 기록) 이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선진국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사업 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의 체감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7월 이후 10월까지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던 중소기업 지수는 11월 들어서는 공공공사 발주 소폭 증가, 통계적 반등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6.4p 상승한 46.4를 기록해 5개월만에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소폭 개선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분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종합	72.4	68.1	69.0	73.8	66.3	74.1	71.1	68.9	73.8	65.4	66.0	69.0	70.3	
규모별	대형	92.9	78.6	92.3	107.7	76.9	83.3	84.6	76.9	100.0	84.6	84.6	76.9	76.9
	중견	79.2	73.1	76.9	58.3	66.7	73.9	72.0	75.0	73.1	68.0	64.0	80.0	75.0
	중소	40.7	50.0	32.7	51.8	53.6	63.6	54.4	52.6	43.9	40.0	46.4	47.3	57.1
지역별	서울	90.5	79.1	82.0	87.9	68.6	77.4	80.2	78.4	91.6	74.1	73.9	76.5	71.9
	지방	46.2	51.2	49.7	53.3	62.9	71.2	57.2	54.6	47.5	52.7	53.8	58.1	67.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12월 CBSI 전망치는 11월 실적치 대비 4.3p 상승한 70.3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4.3p 상승한 것은 건설업체들이 12월에는 건설경기 침체수준이 11월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12월에는 연말 공공공사 발주 증가, 통계적 반등 등으로 지수가 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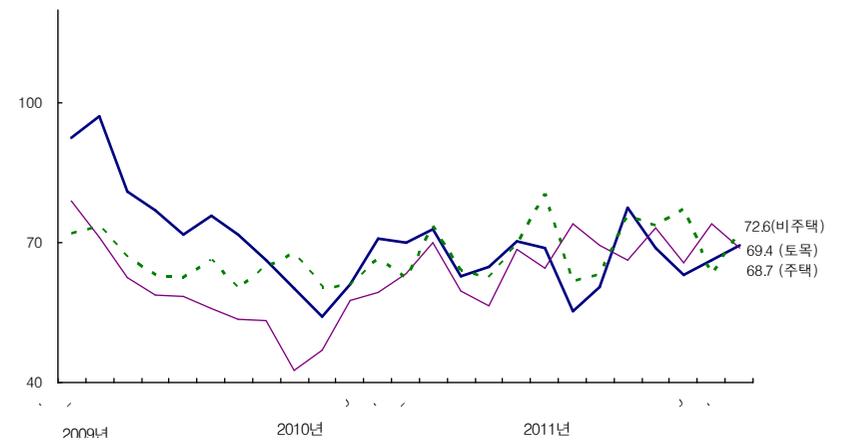
상승할 수 있으나, 전망 지수 자체는 70.3으로 기준선인 100.0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됨.

- 지역별로 11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0.2p 하락한 73.9로 10월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방업체 또한 지수가 1.1p 증가한 53.8로 큰 변화 없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10월에 17.5p 급락하면서 74.1을 기록, 지수가 두 달만에 다시 70선으로 하락하였음. 11월에도 뚜렷한 변화없이 0.2p 감소한 73.9로 지난 10월의 부진한 양상을 이어감.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지난 10월에 52.7을 기록한 후, 11월에도 53.8로 지수가 여전히 50선에 머물러 부진함.

**11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보다 12.9p 증가한 74.3기록**

- 11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2.9p 증가한 74.3으로 지난 9월(73.5) 수준을 회복함.
  - 공사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비주택물량의 하락으로 전월보다 12.1p 감소한 61.4을 기록, 14개월 동안 가장 부진한 실적을 보였음.
  - 11월 들어 토목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상승하면서 다시 지수가 70선인 74.3을 기록, 이로써 지수는 다시 9월(73.5) 수준으로 회복함.
  - 지난 10월 하락했던 비주택 물량이 다시 10.0p 가까이 회복한 것이 지수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전히 지수가 기준선 100 미만인 70선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공종별로 주택물량이 전월대비 5.3p 감소하였으나,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전월보다 증가(각각 3.0p, 9.4p)하였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대비 3.0p 증가한 69.4를 기록함. 다만 지수가 여전히 60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한편,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전월보다 8.4p 증가해 올 들어 가장 양호했던 수치(74.0)를 보였는데 11월에 다시 5.3p 감소하면서 다시 70선 미만인 68.7을 기록하였음.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전월 대비 13.9p나 감소한 63.2를 기록해 부진하였음. 11월에 들어와 지수가 다시 9.4p 회복해 70선 이상인 72.6을 기록, 상대적으로 다른 공종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 중견, 중소기업체 모두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전월보다 25.0p 감소한 75.0을 기록해 크게 하락하였음. 11월에는 지수가 크게 하락한데 따른 반등효과로 전월보다 9.6p 증가한 84.6을 기록함.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8월과 9월 두 달 연속 감소하여 지수가 68.8로 부진하였으나, 11월 들어와 토목과 비주택 물량이 증가해 전월보다 15.3p 상승한 83.3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 또한 전월보다 13.9p 증가한 51.8을 기록함. 지난 8월(51.8)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록 지수가 증가했어도 50선에 불과해 여전히 중소기업체의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물량지수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 모두 전월보다 12.0p 이상 증가했음.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10월 20.7p 감소한 68.3으로 지수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11월에 12.9p 증가해 81.2를 기록함. 결국, 2개월 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9월과 10월 각각 50.7, 51.2로 2달 연속 50선에 머물렀는데 11월에는 지수가 전월 보다 12.4p 증가한 63.6으로 올 들어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임.
- 2011년 12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1월 실적치보다 4.4p 증가한 78.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12월 전망 지수 증가폭이 그리 높지 않아 계절적으로 연말에 물량상황이 다소 개선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 토목 물량지수는 11월 실적치보다 3.7p 증가한 73.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물량지수는 11월보다 0.3p 감소한 68.4로, 12월에도 여전이 물량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1월보다 8.5 증가한 81.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11월과 마찬가지로 12월에도 타 공종에 비해서 비주택공사 물량이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임.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4.3	84.6	83.3	51.8	81.2	63.6
	전망	78.7	84.6	91.7	57.1	84.4	69.8
토목	실적	69.4	84.6	73.9	46.4	78.8	54.8
	전망	73.1	84.6	78.3	53.6	76.4	68.5
주택	실적	68.7	76.9	87.5	37.8	71.6	66.0
	전망	68.4	76.9	75.0	51.0	70.3	66.5
비주택	실적	72.6	100.0	76.0	36.5	81.5	58.8
	전망	81.1	100.0	88.0	50.9	89.2	68.5

주 : 실적은 2011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재비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7.1, 101.6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9.5, 75.3을 기록해 그동안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자재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81.8, 78.8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1.8	92.3	88.0	62.5	83.8	78.8
		전망	86.2	100.0	88.0	67.9	85.1	87.8
	자금조달	실적	78.8	100.0	76.0	57.1	83.7	71.2
		전망	84.2	100.0	84.0	66.1	86.0	81.6
인력	수급	실적	97.1	100.0	104.0	85.7	98.6	94.7
		전망	97.1	100.0	104.0	85.7	98.6	94.7
	인건비	실적	89.5	100.0	104.0	60.7	99.6	73.9
		전망	91.4	100.0	108.0	62.5	101.9	75.3
자재	수급	실적	101.6	123.1	92.0	87.5	109.8	89.0
		전망	103.4	123.1	96.0	88.9	109.8	95.1
	비용	실적	75.3	92.3	80.0	50.0	82.0	65.1
		전망	76.7	92.3	84.0	50.0	86.5	61.5

주 : 실적은 2011년 11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2월 예측지수임.